

진현환 1차관 “창의적 주거 공간, 코리빙(Co-Living) 성장 지원”

- 8일 서울 마포구 코리빙 하우스 방문… 업계 만나 소통하며 현장의견 청취 -

-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3월 8일(금) 오후 2시,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공유 주거공간 코리빙(Co-Living, 이하 코리빙) 하우스 현장을 찾아 주거 공간을 둘러보고 코리빙 개발업체와 코리빙 하우스를 운영하는 리츠 자산관리회사(AMC, Asset Management Company)와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.
 - 코리빙이란 Cooperative(함께) + Living(산다)의 합성어로, 침실과 같은 독립된 개인 공간과 함께, 거실, 주방 등을 공유공간으로 타인과 함께 공유하는 주거 형태를 의미한다.
- 진 차관은 주요 공간을 살펴본 뒤 “라이프 스타일이 다양해짐에 따라 주거 공간에 대한 기대 또한 다양해지고 있으며, 그 중 코리빙은 공유 공간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핵심”이라면서,
 - “주거 공간을 통해 커뮤니티를 만들고 다양한 사람들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코리빙은 청년 세대에게 매력적인 주거 형태가 될 것”이라고 밝혔다.
- 진 차관은 코리빙 개발업체와 리츠 자산관리회사를 만나 의견을 청취하며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. 업체는 코리빙 운영 관련 임대료, 대출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하였다.
 - 진 차관은 업체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“임대 운영 부동산을 개발하는 현장의 어려움에 공감”한다며,
 - “민간에서 창의적으로 부동산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리츠 및 민간임대에 대한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”이라고 강조하였다.

2024. 3. 8.

국토교통부 대변인